

碩士學位論文

존 키츠의 송시(Odes)에 나타난  
미의 양상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李 炫 宜

2008年 8月

# 존 키츠의 송시(Odes)에 나타난 미의 양상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許 允 德

李 炫 宜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李炫宜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8年 8月

<국문초록>

존 키츠의 송시(Odes)에 나타난  
미의 양상에 관한 연구

李 炫 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 允 德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25년 4개월이라는 짧은 인생으로 요절했지만, 4년 동안의 짧은 시작 활동 기간만으로도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상상력은 시인의 정신과 외부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창조적인 힘이다. 키츠는 상상력이 진실에 도달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며,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키츠는 기쁨, 환희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얽혀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고통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의미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념인 ‘받아들이는 힘(Negative Capability)’을 발달시키게 된다. 1819년에 발표된 5편의 송시들은 “진리를 향한 상상력의 정연한 전진”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한 키츠의 미에 대한 인식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미의 대상으로까지 승화시켜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키츠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미의 양상을 ‘감각적 미’와 ‘영원불멸의 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감각적 미’는 키츠가 초기 시에서부터 보였던 자연에 대한 감각적 묘사와 화려한 표현 기교, 남녀 간의 사랑을 암시하는 장면을 통해 오관 전체를 충족시키는 감각적 쾌락을 느끼게 하는 미이다. ‘영원불멸의 미’는 현실에 내재하는 고통과 슬픔까지도 수용하여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미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이상과 현실, 즐거움과 고통, 불멸과 필멸 등의 상반된 개념들을 통합하려는 키츠의 노력을 잘 보여 준다.

‘감각적 미’는 프시케 신화를 소재로 삼아 큐피드와 프시케의 결합 장면을 감각적으로 화려하게 그려낸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와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바탕으로 환희의 신전 속에도 슬픔이 존재한다는 역설과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는 미도 순간적일 수밖에

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우울에 부치는 노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영원불멸의 미’를 추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 「희랍 향아리에 부치는 노래」 그리고 「가을에게」에서 키츠는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각각 나이팅게일, 희랍 향아리, 가을에 몰입하여 합일됨으로써 영원불멸의 세계를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현실에 가득한 고통의 극복과 긍정적 현실수용을 경험하게 된다.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에서 키츠는 현실과 상상 속에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불멸의 상징으로 이끌어낸다. 「희랍 향아리에 부치는 노래」에서 키츠는 그리스 향아리 위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영원불멸의 미를 포착하고 예술의 불멸성,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조화롭게 대치시켜 불변의 예술 작품이 갖는 미 속에서 영원한 현재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가을에게」에서 시인은 자신을 완전히 가을과 합일시킴으로써 그가 말한 상상력인 ‘받아들이는 힘’의 완성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키츠의 전 생애와 작품을 추진시킨 유일한 원동력은 미의 추구였다고 볼 수 있다. 키츠는 상상력을 의미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념인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현실의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본질을 투시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파악한 시인으로서,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원리이자 진리라고 생각하였다. 키츠가 쓴 5편의 송시는 키츠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시 세계에 조화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 들여져 그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인생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인간이 이 세상의 고통과 갈등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물에서 상상력을 통해 포착한 미의 형태로 그의 주옥같은 시들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의 시들은 인간의 영원한 친구로 남아 현실의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위안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	1
II. 키츠의 상상력의 의미 .....	5
III. 감각적 미	
1.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 (“Ode to Psyche”) .....	10
2. 「우울에 부치는 노래」 (“Ode on Melancholy”) .....	19
IV. 영원불멸의 미	
1.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 (“Ode to a Nightingale”) .....	26
2. 「희랍항아리에 부치는 노래」 (“Ode on a Grecian Urn”) .....	35
3. 「가을에게」 (“To Autumn”) .....	42
V. 결론 .....	49
Bibliography .....	53
Abstract .....	56

## I. 서론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25년 4개월이라는 짧은 인생으로 요절했지만, 4년 동안의 짧은 시작 활동 기간만으로도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상상력이란 시인의 정신과 외부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창조적인 힘이다. 키츠는 상상력의 힘으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벗어난 상상력이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고 오히려 파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을 포용하는 상상력을 추구하게 된다. 키츠는 기쁨,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얽혀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고통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의미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념인 ‘받아들이는 힘(Negative Capability)’<sup>1)</sup>을 발달시키게 된다. 1819년에 발표된 5편의 송시들은 “진리를 향한 상상력의 정연한 전진(a regular stepping of the imagination towards a truth)”<sup>2)</sup>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한 미에 대한 인식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미의 대상으로까지 승화시켜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키츠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키츠에게 미는 그 자체가 원리이자 목적으로 추구되었기 때문에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 속에 구현시키는 일이 최대의 과업이었다.

그가 인식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에 대한 인식과 다르다. 그는 감각의 기쁨과 같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순간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영원에 대한 열망에서, 즉, 순간 속에서 영원을 파악하여 비극적 인간 조건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그가 순간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비상해 가는 방법은 현실과 꿈, 감각과 사색과 같은 양극상의 대립을 통해서이다. 그는 기쁨 속에서 슬픔을, 고통 속에서 기쁨을 구하고, 극도로 강렬한 사랑을 죽음에 가까운 것으로 느끼는 시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두 개의 갈등을 일으키는 관념들을

1) “Negative Capability”는 역자에 따라 <받아들이는 힘>, <받아들이는 능력>, <마음을 비우는 능력>, <부정적 수용력>, <여성원리>, <소극적 수용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나 본 논문에서는 <받아들이는 힘>으로 통일하여 번역하기로 한다.

2) Hyder Edward Rollins,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4th Ed.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0), p. 218.

동시에 수용하여 계속 작용케 하는 능력이기도 한 그가 이 세상을 보는 심오한 모순적 시각은 그의 작품에 독특한 시적 완성과 감정의 풍부함에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sup>3)</sup>

키츠는 현실 경험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철학적인 이론의 단순성이나 종교적 신앙으로 대치시켜서 쉽게 안락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섬세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했던 키츠에게 있어 시란 바로 미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실의 모든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본질을 투시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을 긍정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였다.

5편의 송시가 발표된 1819년에 키츠는 연인 패니 브라운(Fanny Browne)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동경과 육체적 쇠약, 경제적 곤궁함, 동생 탐의 죽음 등 정신적·경제적 혼란 상태로 고통 받고 있었다.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또한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상황 하에서도 키츠는 단지 이상으로 향하는 정신적 시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상력의 발휘와 더불어 현실의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지향함으로써, 송시에 이르러 그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즉, 송시에서 키츠는 정신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자연에 대한 애착, 시간 및 공간적으로 먼 것에 대한 동경, 자기 자신의 사상에 대한 정열,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환상과 같이 다양한 면을 묘사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주제들의 핵심에는 현실 속에서 삶의 기쁨과 가능성을 얻으려고 노력한 키츠의 정신적 삶이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키츠에 대한 비평의 양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비평가들은 키츠를 대체로 감각적이고 화려하며 풍부한 무정형의 시인으로 설명한다. 로웰(Amy Lowell)과 포드(N. F. Ford)는 키츠가 그의 시에서 오직 화려하고 감각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개로드(H. W. Garrod)와 브리그스(Harold Edgar Briggs)는 그가 그러한 작품세계를 그려가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이는 환상적 표현기교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sup>4)</sup> 베일리에게 보낸 키츠 자신의 편지에서

3) 정해성, 『낭만주의 및 빅토리아조 영시 개관』 (서울: 도서출판 두남, 1998), pp. 271-274.

4) Helen Vendler, *The Odes of John Keat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1983), pp. 3-14.

조차 ‘사고보다는 감각의 삶을 위하여(for a life of sensations rather of thoughts)’<sup>5)</sup>라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키츠가 순전히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를 추구했다는 이들의 해석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 부류의 비평가들은 키츠가 시작 기간 동안 오로지 감각적 화려함과 충만함으로 가득한 사랑 이야기나 미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또 다른 입장을 취하는 비평가들에는 머리(John Middle Murry), 스틸링거(Jack Stillinger), 베이트(Walter Jackson Bate) 등이 있는데, 이들은 키츠가 그의 작품에서 감각과 사고를 분리시키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의 문제를 그의 작품 속에 내포시키고자 했던 현실 속에 존재한 시인으로서의 키츠를 이해하는데 공헌을 한다.

키츠의 대부분의 초기 시들은 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였고, 인간 삶의 꿈과 열망, 욕망들을 환상과 공상으로부터 끌어내어 표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감상적이고, 미화된 에로틱한 흐름을 유지한다. 키츠의 초기 시는 다분히 이상 지향적이고, 신화나 전설을 그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나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비애를 느끼면서 키츠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삶의 양면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삶에 있어서의 무상함과 한계성이 오히려 값지고 귀중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키츠는 자연에 대해서도 단순한 찬미와 환희에 젖어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채로 지속되지 못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키츠가 상상력을 통해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한 미는 대체로 ‘감각적 미’와 정신적인 ‘영원불멸의 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감각적 미’는 그의 초기 습작생활에서 헛트(James Henry Leigh Hunt)와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로부터 영향을 받아 다양한 자연 현상을 묘사함으로써 우리의 오관에 쾌락과 기쁨을 주는 미이다. 일반적으로 감각적 미는 주로 시각에 의해서 자연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지만, 키츠의 감각적 미는 오관 전체가 작용하는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불멸의 미’로 감각적인 미보다는 더 심원한 것으로 진정한 ‘미의 원리(principle of beauty)’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고통을 승화시켜 그 고통 속에서 최고의 희열

5) Rollins, p. 185.

을 느낄 수 있는 미적 감각을 의미하는데, 곧 정신적인 미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모든 미는 결국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받아들이는 힘’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고, 3장에서는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와 「우울에 부치는 노래」에 나타난 ‘감각적 미’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 「희랍 항아리에 부치는 노래」 그리고 「가을에게」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건강한 상상력으로 평가 받는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영원불멸의 미’가 인간에게 위안, 기쁨 그리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키츠의 미에 관한 미묘한 발전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키츠가 폭넓은 시각으로 어떻게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했는지를 파악하고,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원리이자 진리라고 생각한 키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 세계를 이해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II. 키츠의 상상력의 의미

영국 낭만주의는 1798년부터 1832년까지에 걸친 시 중심의 문학사조이며, 워즈워스와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로 대표되는 제1세대 낭만주의 혹은 절정기 낭만주의와 그 뒤를 이어 활동한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셸리(Percy Bysshe Shelley), 키츠로 대표되는 제2세대 낭만주의 혹은 후기 낭만주의로 구분한다. 현실적 삶의 고통과 반대되는 ‘기쁨’이 제1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의 공통된 화두였다면, 제2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은 ‘기쁨’외에 ‘아름다움’을 또 다른 화두로 내세운다. 상상력을 통해서 물질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의 회복이 좌절에 부딪힌 낭만주의적 위기에서 제2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이 착안한 삶의 가치, 즉 ‘아름다움’은 시간성, 고통, 죽음과도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였다. 즉, 현실적 삶이 고통스럽고 슬프더라도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sup>6)</sup>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키츠가 선택한 방법이 상상력을 의미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념인 ‘받아들이는 힘(Negative Capability)’이다. 그가 사물의 본질이나 정체를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받아들이는 힘에 의한 시 창조 과정인 것이다. 키츠는 받아들이는 힘을 동원하여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핵심을 꿰어 보는 노력을 거듭하였고, 마음을 비우고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어떤 대상에 몰입하여 대상과 합일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고자 했다.

키츠의 시와 인생에 대한 견해가 담긴 편지들은 키츠의 연구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다음은 키츠가 동생 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받아들이는 힘’의 정의이다.

세익스피어가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던 것 -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받아들이는 힘’이란 인간이 사실이나 이성을 애써 추구함이 없이 불확실성과 신비와 의아스러움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경우다. <sup>7)</sup>

6) 영미문학연구회, 『영미문학의 길잡이 1(영국문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p. 301-303.

7) Rollins, p. 193.

받아들이는 힘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그 대상의 모든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인식능력이며 나아가 역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시인의 특별한 인지력을 의미한다. 키츠는 인간이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써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능력을 극대화시켜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사심 없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키츠는 시인은 주관적인 주장과 의도를 내세우지 말고 자아를 비운 채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여겼다.

시인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시적인 사람이다. 그 까닭은 시인은 개성이 없다. 시인은 지속적으로 다른 물체 - 태양, 달, 바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 에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의 심성을 충만케 한다. 이것들은 충동의 산물이기에 시적이며, 그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특질을 갖는다. 시인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며 개성도 없다. 시인은 확실히 신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비시적인 사람이다. 8)

받아들이는 힘(Negative Capability)은 시인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일단 시인의 개성이 배제된 상태가 되면 사물이나 자연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태양이나 달, 바다, 인간 등의 정체성을 지니며 객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정체성을 감지한다. 시인은 독자적이고 고정된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키츠는 대상의 본질과 교감하고 동화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대상의 성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시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였다.

키츠는 상상력이 진리에 도달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며,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마음의 애정에서 우러난 감정의 숭고함과 상상력의 진리만을 확신한다. 상상력이 미로 포착한 것은 그것이 전에 존재했든 그렇지 않든 진리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처럼 우리의 모든 열정들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모두 숭고하여 본질적인 미를 창조해 낸다... 상상력은 아담의 꿈에 비유될

8) *Ibid.*, p. 387.

수 있다. - 아담이 깨어 보니, 그 꿈은 진짜였다. - 나는 일관된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

키츠는 상상력이야말로 미와 진리를 인지하는 필요 수단으로 생각했다. 즉, 키츠의 상상력은 미의 본질에 몰입함으로써 사물의 신비를 탐색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상상력을 미로써 포착한 진리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키츠가 그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현실 세계의 고통 또한 우리 인간 영혼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아담의 꿈’이 의미하는 것처럼 많은 시에서 상상세계와 현실세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두 세계가 동일시 될 때가 많은데, 키츠가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도 ‘꿈’과 ‘깨어남’이 교차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휴(Graham Hough)는 키츠에게 있어서 “시의 필요조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개선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sup>10)</sup>이라고 말한다. 윌리엄스(Meg H. Williams)는 “정체성을 가지 않는 시인은 ‘받아들이는 힘’의 원리와 피상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다.”<sup>11)</sup>고 보고, 웨서만(Earl R. Wasserman)은 ‘받아들이는 힘’을 “자아를 부여할 수 없는 힘(the power to give no self)”<sup>12)</sup>으로, 머리는 “결단성 있는 성격의 결핍(the lack of determined character)”<sup>13)</sup>으로 해석한다.

키츠는 삶 자체를 모순이 합쳐진 총체라고 보았고, 이러한 그의 인생관을 시 속에 내포했다는 데에 그의 시적인 천재성이 있다. 그는 즐거움과 슬픔, 이상과 현실, 삶과 죽음, 영원과 순간 같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 융화되어 공존한다고 믿었다.<sup>14)</sup>

키츠는 ‘영혼 형성(soul-making)’ 이론을 설정하여 상상력에 의한 진리파악을 설명한다. 슬픔과 고통이 뒤섞인 이 세상을 ‘영혼 형성의 계곡(a vale of

9) *Ibid.*, p. 185

10) Graham Hough, *The Romantic Poets* (London: Grey Arrow Edition, 1958), p. 170.

11) Meg H. Williams, *Inspiration in Milton and Keats* (London: Macmillan, 1982), p. 124.

12) Earl R. Wasserman, *The Finer Tone: Keats' Major Poem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p. 38.

13) John M. Murry, *Keats and Shakespeare* (London: Oxford UP, 1925), p. 48.

14) 이정호, 『키츠 시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3.

soul-making)’으로 보고, 영혼 형성을 위한 3가지 요소를 ‘지성(intelligence)’, ‘감성(human heart)’ 그리고 ‘세상(world)’으로 설정한다. 고통과 곤경의 세상에서 구체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지성과 감성이 합일을 이룰 때, 서서히 정신을 나뉠대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혼 형성은 아름다움을 감지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시에서 상상력에 의해 미와 진리를 동일하게 하는 전개과정으로 나타난다.

부르고 싶으면 세상을 ‘영혼 형성 계곡’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너는 세상의 유용함을 알게 될 것이다. ‘영혼 형성’에서의 영혼은 지성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 수백만의 다양한 빛과 지성이 있는 것인데 - 그러나 그것들은 정체성을 획득해야만 그리고 각각 그 자체거나 개별적인 것이 되어야만 영혼이라 할 수 있다. ...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신인 이 빛들이 그들에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 인간 개인에게 특별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인가? 이와 같은 세상의 중재에 의해서?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그것은 영혼 창조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5)

키츠는 기독교가 내세를 기약하면서 현실을 눈물의 계곡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배격하고, 인간이 현존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인내하고 인간성을 단련하여 자기 구원을 꾀할 수 있다는 영혼 형성 이론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체계이다. 키츠는 현실의 고단한 생활이 영혼 형성 계곡이라고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간의 내면 속에 영혼을 구축해서 현실 세계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키츠는 상상력에 대해서 위즈워스나 콜리지처럼 절대적 초월의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마음이 현실적 경험으로 통하는 경지가 키츠가 말하는 상상력의 기능이며, 그러한 상상력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강렬하고 아름다운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강렬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야말로 키츠가 말하는 영원한 경험이다. 키츠가 말하는 영원성이란 시간성과 대조되는 외형적 개념이 아니라 강렬한 정서적 경험 자체인 것이다. 키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쁘게 바라본 시인은 아니었지만 그 삶을 아름답게 바라봄으로써 수용할 수 있었던 시인이다.

---

15) Rollins, pp. 102-104.

결국 키츠는 현실 속에서 고통과 슬픔마저도 영혼의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미가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키츠는 자신의 미에 대한 애정과 포착된 미를 진리가 되도록 하는 힘을 키츠의 상상력인 ‘받아들이는 힘(Negative Capability)’에 의존한다. 키츠에게 상상력은 미와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시인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켜 행복을 만나게 되는 폭넓은 인식능력을 의미한다.



### Ⅲ. 감각적 미

#### 1.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 (“Ode to Psyche”)

키츠의 송시들 중 가장 먼저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에 대해 베이트(Walter Jackson Bate)는 이 시가 모든 송시들의 깊이만큼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나머지 송시들을 쓰게 한 ‘촉매제적인(catalytic)’ 역할을 했으며 “나머지 송시들에 대한 원형(a prototype for the others(later Odes))”<sup>16)</sup>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반조(Mario D’Avanzo)는 “이 시가 키츠의 시적 상상력을 가장 많이 말해주고 있다.”<sup>17)</sup>고 평가한다.

이 시는 목가적 로맨스나 신화로부터 시 소재를 찾던 초기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키츠는 프시케 신화로부터 그 소재를 취했다. 키츠는 큐피드와 프시케의 사랑을 주제로 한 희랍 신화를 통해 자신이 갈망했던 사랑과 영혼을 발견하게 된 것을 묘사했으며 애인 패니 브라운과의 관계를 이 신화에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감동을 독특하게 묘사한다. 키츠는 인간 프시케가 큐피드의 사랑을 받고 모든 현실의 고통을 수용하여, 마침내 여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프시케와 큐피드가 결합을 이루어 여신이 되었을 때, 프시케는 그녀 자신 속에 영원과 찰나, 불멸과 필멸 같은 서로 상반되는 특질을 수용하게 된다. 고통과 방황 후에 얻은 사랑의 완성이 키츠에게는 고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알맞은 시 소재가 된다. 이 시에서 큐피드와 프시케의 결합은 중심적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인의 구원체계라 할 수 있는 ‘영혼형성의 계곡’에 대한 사색과 일치하는데, 이것은 프시케가 인간 영혼을 의미한다는 점과 동생 조지(George)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시의 원본이 실리기에 앞서 영혼 형성에 대한 사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6) Walter Jackson Bate, *John Keat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P, 1978), p. 498.

17) Mario D’Avanzo, *Keats' Metaphors for the Poetic Imagination* (Durham: Duke UP, 1967), p. 214.

큐피드(Eros, 사랑의 신)와 프시케(영혼, 정신)의 결합은 전통적으로 사랑에 대한 영혼의 개방, 감정과 정신 혹은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합일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키츠에게는 감각과 사고의 융합, 영혼을 상징하는 듯한데, 무엇보다도 마음의 애정이 주는 상상력에 대한 격려를 상징하는 것 같다. 18)

프시케라는 인간과 큐피드라는 신이 결합하는 것은 ‘감성’과 ‘사상’의 결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영혼 형성’의 계곡인 이 세상이 감성과 지성을 단련시키는 것인 동시에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합 또한 프시케가 무수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랑의 성취를 넘어선 인간 영혼의 승리를 나타내는 셈이다.

이 작품은 키츠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프시케 여신에게 기원하여 자신의 시를 바침으로써 시작된다.

오 여신이여! 달콤한 강압과 아름다운 추억이 짜낸,  
이 곡조 없는 시에 귀를 기울여 주오,

O Goddess! Hear these tuneless numbers, wrung  
By sweet enforcement and remembrance dear, 19)

키츠는 프시케를 자신의 시의 여신으로 불러내어 시적 영감을 간구함과 함께 산책길에서 목격한 꿈과 같은 포옹의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녀에게 간청한다. “달콤한 강압”은 억지로라도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나타내는 서로 상반되고 병치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키츠에게 있어 프시케에 대한 시를 쓰는 작업은 하나의 힘든 일이면서 동시에 달콤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키츠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즉, 자신이 큐피드 신과 프시케 여신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또는 “잠 깨어 뜬 눈”이 암시하는 실제 속의 상상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한다.

18) Wolf Z. Hirst, *John Keats: Twayne's English Authors Series* (Boston: G. K. Hall & Co, 1981), p. 119.

19) Elizabeth Cook, ed., *John Keats: The Major Works* (London: Oxford UP, 2001), I, 1-2. 본문에서 다루는 모든 시는 이 책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시의 연과 행수만을 표시하겠음.

나는 확실히 오늘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내가 보았던 것일까?  
 잠 깨어 눈 뜬 날개 달린 프시케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숲 속을 거닐었다.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라 기절하며  
 아름다운 두 사람을 보았지.  
 깊숙한 덩굴 속에 나란히 누워 있는  
 거의 찾아내기 힘든 시냇물이 흐르는 곳,  
 잎사귀와 떨리는 꽃들이 속삭이는 지붕 아래서.

Surely I dreamt to-day, or did I see  
 The winged Psyche with awaken'd eyes?  
 I wandered in a forest thoughtlessly,  
 And, on the sudden, fainting with surprise,  
 Saw two fair creatures, couched side by side  
 In deepest grass, beneath the whispering roof  
 Of leaves and trembled blossoms, where there ran  
 A brooklet, scarce espied. (I, 5-12)

키츠는 꿈과 실제 사이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생각을 독특하게 표현한다. 몽환적 상태는 키츠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다반조에 의하면 이러한 몽환적 상태는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는 “꿈과 의식의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마음(mind)이 가장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sup>20)</sup>라고 주장한다.

그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험을 계속한다. 그는 숲 속 작은 시냇가의 실바람에 흔들리는 꽃과 나뭇잎 아래 누워 포옹하고 있는 큐피드와 프시케를 만나게 된다. 그가 두 신을 만나게 된 장소는 숲이다. 키츠의 시에서 ‘숲’은 흔히 상상력과 현실이 만나는 곳, 즉 그것의 교차점이 되며 상상력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영역이기도 하다.<sup>21)</sup> 그는 숲을 프시케와 큐피드를 목격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설정하고 있다.

두 팔과 날개로도 역시 서로 껴안고서

20) D'Avanzo, p. 203.

21) Ernest C. Pettet, *On the Poetry of Keats* (Cambridge: Cambridge UP, 1986), p. 221.

그들의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영원한 작별을 고하지도 않았네.  
마치 부드러운 손길을 가진 잠으로 인해 떨어졌으나,  
이전의 입맞춤을 항상 능가하려는 듯

Their arms embraced, and their pinions too;  
Their lips touched not, but had not bade adieu,  
As if disjoined by soft-handed slumber,  
And ready still past kisses to outnumber. (II, 16-19)

이러한 모습은 인간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포옹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바로 “날개로도 역시” 껴안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사랑의 즐거움을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사랑”<sup>22)</sup>의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이 두 연인을 목격했을 때, 그는 이제 신화로 알고 있던 경험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극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며, 그 둘이 누리는 열정 또한 우리 인간들의 것처럼 숨 가쁘게 진행된다. 키츠는 프시케의 존재에 대해 “그대는 누구였던가 (who wast thou)”라고 묻고 난 후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의 진정한 프시케였노라(His Psyche true!)”라고 외친다. 이것은 “키츠에게 프시케라는 여인의 존재가 완전히 실체의 것으로 회복되어져 믿겨지게 되는 부분”<sup>23)</sup>으로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시작도 끝도 분명치 않은 “어떤 강렬함과 절제가 어우러져 있는 상태 (the union of intensity and restraint)”<sup>24)</sup>이다.

오 모든 올림포스 산의 퇴색한 계급 중에서도  
가장 늦게 태어난 가장 사랑스런 환상이여!  
달의 여신 포이베의 청옥색 별보다 더 아름답고,  
하늘의 사랑스런 반딧불보다 더 아름다운 너.

O latest born and loveliest vision far

22) N. F. Ford, *The Prefigurative Imagination of John Keats: A Study of the Beauty-Truth Ident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Hamden, Conn.: Archon Books, 1966), p. 59.

23) Leon Waldoff, *Keats and the Silent work of Imagination* (Urbana, Champaign: Univ. of Illinois Press, 1985), p. 110.

24) Bate, *John Keats*, p. 410.

Of all Olympus' faded hierarchy!

Fairer than Phoebe's sapphire-region'd star,

Or Vesper, amorous glow-worm of the sky; (III, 24-27)

프시케는 가장 늦게 올림포스의 여신이 되었다는 사실과 사람들이 그녀를 경배하는 것에 소홀히 했었다는 점에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세월을 버티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키츠는 프시케가 고통스러운 인간 세계의 문제들을 체험하고 견디어 이겨낸 여신이기 때문에 올림포스 산의 어느 신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올림포스 산의 퇴색한 계급” 같은 표현을 통해 올림포스 산의 다른 신들이 프시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키츠는 프시케를 “달의 여신 포이베의 청옥색 별”과 한밤중 맑고 푸른 하늘에 떠있는 “반딧불”보다 더욱 아름답다면서 자신이 항상 갈망해 왔던 인간의 삶에 위안과 정열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미의 여신으로 묘사한다. 이는 큐피드의 어머니 비너스의 질투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견디어 낸 후, 주피터 신에 의해 올림포스의 마지막 여신이 되어 큐피드와 재결합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게 된 프시케에 대한 찬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으로 인한 오랜 방황과 고통을 겪고 난 뒤 행복을 찾게 되는 프시케는 곧, 고통과 곤경의 세상을 통해 지성을 훈련시켜 영혼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을 이루는 것은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임을 강조한 키츠는 불행과 비탄, 고통, 병과 압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매개로 함으로써 영혼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고통과 곤경의 세상이 지성을 훈련하고 영혼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너는 잘 알지? 마음이 천 가지의 다양한 상태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곳 | 마음은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그것은 정신의 성경이며, 정신의 경험이지. 그것은 정신과 지성이 그 주체성을 얻어내야 하는 유두와 같은 것이지. - 인간들의 삶이 다양하듯이 - 그들의 영혼 또한 다양하게 되지. 그렇게 신은 개개인들을, 영혼들을 만드는 것이지. 25)

---

25) Rollins, pp. 102-103.

이 편지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새로이 창조되는 것인데, 감정과 세상과 지성 3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고통이나 슬픔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본체는 인간의 마음이고 세상은 그러한 감정의 경험을 통해 지성을 훈련시켜 간다. 훈련받은 지성에 의해 형성된 영혼은, 프시케와 큐피드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처럼 감정과 정신이, 마음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인간 프시케가 영혼의 여신으로서 자아를 완성하기까지 키즈가 말한 것과 동일한 세상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겪어야만 했다.

프시케는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모습의 아무런 꾸밈도 없는, 아무런 칭송의 노랫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여신이다. 그녀는 달의 여신이나 초저녁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도 더 아름답지만, 신전 하나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여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신이 되었으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잊히어 왔으며 고초를 겪고 고립당하고 있는 그녀에게 안식처가 필요하다.

나는 보노라, 그리고 나 자신의 눈에 영감을 받고서 노래하노라.  
 그러니 나를 그대의 합창대로 삼아주소,  
 그리하여 한밤중의 시간에 소리를 내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대의 현금, 그대의 피리, 흔들리는 향로에서  
 넘치는 그대의 그윽한 향기로 삼아 주소,  
 그대의 신전, 그대의 덩불, 그대의 신탁, 창백한 입술의  
 꿈꾸는 예언자의 황홀로 삼아주소.

I see, and sing, by my own eyes inspired.  
 So let me be thy choir, and make a moan  
 Upon the midnight hours;  
 Thy voice, thy lute, thy pipe, thy incense sweet  
 From swung censer teeming;  
 Thy shrine, thy grove, thy oracle, thy heat  
 Of pale-mouth'd prophet dreaming. (IV, 43-49)

키즈는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 가는 이때에 노력을 들일 적절한

대상인 시적 상상력의 상징으로 프시케를 택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시를 바침으로써 프시케의 사제와 예언자로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여신 프시케가 지금까지 여신으로서 갖지 못한 그녀를 위한 “목소리, 현금, 피리, 향로, 향기, 신전, 덤불, 신탁” 등 무엇이든 되겠다고 한다. 이는 프시케 여신의 미에 매혹되어 어떤 영감을 얻고 그녀의 합창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사양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이 미의 추종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블룸(Harold Bloom)은 “그러니 나를 그대의 합창대로 삼아주소, 그리하여 한 밤중의 시간에 소리를 내게 해주오.” 부분을 “매우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의 미가 암시되어 있는 표현(sly hint of the sexual sublimation in aspects of worship)”<sup>26)</sup>이라고 말한다. 또한 키츠는 프시케를 마음의 작용으로 감지하고 영감을 받은 눈으로 보며 그녀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과정을 블룸은 “여기에서 시인이 이미 지니고 있던 프시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상력의 도움으로 그녀를 인식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sup>27)</sup>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키츠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프시케를 목격했던 한밤중에 프시케를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제 키츠는 미의 여신 프시케의 사제가 되어 자신의 정신 속 새로운 영역에 그녀를 위해 신전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내가 그대의 사제가 되리라. 그리하여 내 마음의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 신전을 짓겠노라.  
그곳에 즐거운 고통으로 새로 자란, 생각의 가지들이  
소나무 대신 바람결에 속삭이도록 하겠노라.  
저 멀리 주위에 울창한 나무들이  
산봉우리마다 깃털처럼 겹치게 하겠노라.  
그리고 거기엔 산들바람, 시냇물, 새들과 벌들로,  
이끼 위에 누운 숲의 요정들을 잠들게 하리라.

Yes, I will be thy priest, and build a fane

26) Harold Bloom,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London: Cornell UP, 1971), p. 400.

27) *Ibid.*, p. 401.

In some untrodden region of my mind,  
 Where branched thoughts, new grown with pleasant pain,  
 Instead of pines shall murmur in the wind:  
 Far, far around shall those dark-cluster'd trees  
 Fledge the wild-ridged mountains steep by steep;  
 And there by zephyrs, streams, and birds, and bees,  
 The moss-lain Dryads shall be lull'd to sleep;           (V, 50-57)

“내가 그대의 사제가 되리라”라는 시인의 다짐은 프시케가 겪은 영혼 형성 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내면화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창조한 시인은 영감 받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노래함으로써 자아를 완성하고, 시인으로서 적극적인 시를 쓸 수 있을 만큼 상상력을 풍부하고 활기 넘치게 만들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프시케는 시인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 넣어 주는 ‘시적 영혼의 여신’, 즉 뮤즈의 존재가 된다.<sup>28)</sup> 키츠가 프시케와 친밀하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의 상상력은 더욱 더 넘쳐흐를 것이고, 강렬하고 힘이 넘쳐흐르는 시적 감각을 얻게 될 것이다. 고통을 통해서 여신의 자리에 오른 프시케를 자신이 쓰는 시의 신으로 맞이함으로써, 키츠는 현실의 고통을 포용할 수 있는 상상력을 이룩하게 된다.

이제 시인의 정신은 행복과 슬픔을 모두 맛보게 될 성숙한 마음으로 자라 “가지를 친 생각”은 “소나무”를 대신하여 바람에 흔들려 소리 내듯 시를 지어내게 할 것이다. 요정조차 평화롭고 달콤하게 잠에 빠져 있는 자연의 모습은 키츠가 초기에 도피처나 안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자연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자연으로부터 내면세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크스테인(Morris Dickstein)은 이것을 “내재화된 풍경(internalized landscape)”<sup>29)</sup>이라고 표현한다. 키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을 블룸 또한 “산들과 다른 자연 현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음을 환기시키는 것”<sup>30)</sup>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키츠가 그만큼 의식을 확장하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28) Stuart M. Sperry, *Keats the Poet* (Princeton: Princeton UP, 1973), p. 254.

29) Morris Dickstein, *Keats and His Poetry: A Study in Developme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4), p. 201.

30) Bloom, p. 401.

이제 시인은 그가 이루어낸 정신적 자연의 풍경 속에 자신의 성전을 꾸미는데, 그는 거기에서 상반된 것들의 조화와 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키츠는 자신의 시적 바탕인 상상의 세계가 언제나 인간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광활한 침묵의 한가운데  
장밋빛 성전을 꾸미겠노라.  
활발한 두뇌의 꽃다발을 격자 장식으로,  
꽃봉오리, 종꽃, 그리고 이름 없는 별들로,  
꽃을 가꾸면서도, 결코 똑같은 꽃을 가꾸지 않는  
상상이라는 정원사가 꾸며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엔 그들 많은 사상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부드러운 즐거움을 그대를 위해 바치겠노라.  
찬란한 햇불, 따스한 사랑의 신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창문하나를 밤중에 열어놓겠노라!

And in the midst of this wide quietness  
A rosy sanctuary will I dress  
With the wreath'd trellis of a working brain,  
With buds, and bells, and stars without a name,  
With all the gardener Fancy e'er could feign,  
Who breeding flowers, will never breed the same:  
And there shall be for thee all soft delight  
That shadowy thought can win,  
A bright torch, and a casement ope at night,  
To let the warm Love in! (V, 58-67)

이처럼 시인이 “장밋빛 성전”을 상반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활발한 두뇌”와 “상상력”이 서로 잘 어울리는 조화의 영역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고, 별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도 없는 꽃들로 꾸며져 있는 상상의 화환으로 장식된 격자 울타리로 단장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프시케는 기쁨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키츠가 프시케 여신을 위해 그의 정신 속에 만든 신전에 장밋

빛 성전을 만들고 단장하리라고 한 것은 그가 정신적이거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시적 바탕을 상상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미로 정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평소에 갈망했던 삶의 확신과 열정, 그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미’라는 신념과 자신이 이러한 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보여준 것이다. 키츠는 자신의 상상 세계의 문을 사랑을 위해 활짝 열어 둘 것을 다짐한다. 이는 상상력을 통해 사랑의 미를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프시케가 찬란한 햇불을 켜놓고 큐피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 자신도 시를 통해 따뜻하고 밝은 미래를 맞을 채비로 희망에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에서 키츠는 프시케 신화로부터 시 소재를 취하고 인간 프시케와 큐피드의 결합을 키츠 특유의 공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수용함으로써 화려하고 충만한 감각적 미를 추구하였다. 숲 속을 거닐다 발견한 큐피드와 프시케는 껴안은 채 잠들어 있으며 주위의 자연도 숨을 죽이고 이들을 지켜보는데, 키츠는 남녀 간의 사랑을 암시하는 장면과 그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화려하게 그려낸다. 올림포스의 마지막 여신을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의 신으로 삼아 그의 사제가 되리라는 다짐을 통해 키츠는 이 시에서 현실 세계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과 우리들에게 삶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우울에 부치는 노래」 (“Ode on Melancholy”)

키츠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통은 그의 짧은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두 달도 채 안되었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부모의 정을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늘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앓아간 유전성 폐병의 공포를 항상 의식해야 했다. 남들에게는 기쁨인 사랑마저 그에게는 절망이

었다. 이 시가 쓰인 시기가 5월 또는 6월로 추정되는데, 날씨 또한 구름 끼고 비가 오는 우울한 날이 많았다고 한다. 키츠 개인적으로도 목에 생긴 악성종양이 더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으며, 재정적인 궁핍으로 일 이년간 외항 승선 의사의 직업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울(melancholy)’이라는 주제는 키츠의 전반적인 생활과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한가운데서 인간이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우울’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해 그것과 직접 대면하여 적극적으로 부딪히려 한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거나 감상적 애련에 빠져들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좌절감과 슬픔이 기쁨에 이르는 성숙한 일면을 보여준다. 그는 이 시에서 즐거움과 고통, 기쁨과 슬픔, 일시성과 영원성을 우울과 더불어 강렬하게 경험한다. 따라서 「우울에 부치는 노래」는 덕스테인의 말대로 “헌신과 수용과 ‘삶에 대한 저주’라기 보다는 ‘삶에 대한 약속(a promise of life)’을 노래한 시”<sup>31)</sup>이다.

키츠는 이 시에서 자신과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통과 슬픔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겨내면 결국 모든 사물과 현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미에서 삶의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에게 있어 미는 위안과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며 생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로 옮겨 놓는 일은 키츠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었다. 키츠는 이 시에서는 슬픔이 갑자기 유발되었을 때에도 순간적이지만 강렬한 감각적인 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들을 통해 ‘위안, 기쁨, 행복’을 강렬하게 제시한다.

절대, 절대로 망각의 강으로 가지 말라, 또한 비틀지 말라,  
깊이 뿌리박은 지아비꽃을, 그 독즙을 얻기 위해;  
또한 네 창백한 이마로 키스 받게 하지 말라,  
가마중 독초에 의해, 포르세피나의 루비 색 포도인;  
주목열매로 너의 목주를 만들지 말라,  
딱정벌레나, 죽음의 나방으로 하여금  
너를 조상하는 프시케가 되게 하지 말고, 털이 수북한 올빼미로  
네 슬픔의 신비함의 짝이 되게 하지 말라;

---

31) Dickstein, p. 231.

왜냐하면 그림자에 이은 그림자가 너무나 지루하게 찾아와,  
영혼의 잠 못 이루는 고뇌를 익사시킬 것이기 때문에.

No, no, go not to Lethe, neither twist  
Wolf's-bane, tight-rooted, for its poisonous wine;  
Nor suffer thy pale forehead to be kiss'd  
By nightshade, ruby grape of Proserpine;  
Make not your rosary of yew-berries,  
Nor let the beetle, nor the death-moth be  
Your mournful Psyche, nor the downy owl  
A partner in your sorrow's mysteries;  
For shade to shade will come too drowsily,  
And drown the wakeful anguish of the soul. (I, 1-10)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죽음의 수단에 의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고통은 괴롭기는 하지만 영혼을 일깨우는 동시에 현실적 삶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역설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그 어떤 행위도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키츠는 생각한다. “그림자에 이은 그림자”가 “영혼의 잠 못 이루는 고뇌”를 찾아와 익사시키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나 망각의 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고 걱정하는 훈계조의 독백은 “독즙”이나 “가마중 독초”, 저승의 여신 “포르세피나”, “주목열매”, “딱정벌레”, “죽음의 나방”, “올빼미” 등 죽음을 내포하는 것들로부터 멀리하라는 명령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베이트는 “숙고할 상징적 대상이 없음으로 시인은 자신을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sup>32)</sup>라고 한다. 하지만 시인의 설득이나 훈계는 바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며 가상의 인물은 바로 “시인의 영혼에 있는 초상(an image in the poet's psyche)”<sup>33)</sup>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러 번 사용되는 강한 부정 어구는 망각이나 도피로의 유혹을 거절하려는 시인의 의지로 보인다. 샤프(Ronald A. Sharp)는 이것을 “자살의 거부”<sup>34)</sup>로까지 해석한다.

32) Bate, *Coleridge, Keats and the Imagination* (Columbia: Missouri UP, 1990), p. 521.

33) Waldoff, p. 147.

34) Ronald A. Sharp, *Keats, Skepticism and the Religion of Beauty* (Athens: The Univ. of George Press, 1979), p. 59.

이 시는 예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이다. 슬픔과 두려움, 고통스러운 실망감과 그리고 어머니나 친구로부터 받은 인간적인 경험의 중심으로서 겪은 패배감의 중심에 묵주가 있다. ... 묵주의 주된 기능은 인간적인 경험의 중심에 있는 고통이다. ... 묵주가 가진 주된 이미지는 문맥상 우울한 분위기 - 슬픔, 고통, 그리고 두려움 - 로서 기능이다. 아마도 경험이었을 것 같은, 그러나 이 시에는 또한 기쁨과 부활이 있다. 35)

“묵주”는 단순히 구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주목열매”로 만든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절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의 의미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을 말한다.

키츠는 우울은 봄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우울은 인간이 굳이 찾지 않아도 인간 내부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름다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소나기와 같은 존재로, “눈물 흘리는 구름”인 양 “고개 수그린 꽃들”을 적셔 주고 언덕을 “사월의 수의”로써 감싸주는 존재인 것이다.

키츠는 슬픔이 봄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유발될 때 역설적으로 미가 극도에 달하게 되지만, 동시에 순간적일 수밖에 없는 대상들에서 그 슬픔을 느껴보라고 한다.

그때는 네 슬픔을 실컷 맛보라, 아침 장미에서,  
짙은 모래 물결의 무지개에서,  
또는 주렁주렁 달린 둥근 작약에서;  
혹은 만일 네 연인이 몹시 화를 낸다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꼭 붙들고, 그녀를 미친 듯 고향지르게 하라,  
그리고 깊이, 깊이 그녀의 비길 데 없는 두 눈을 만끽하라.

Then glut thy sorrow on a morning rose,  
Or on the rainbow of the salt sand-wave,  
Or on the wealth of globed peonies;  
Or if thy mistress some rich anger shows

35) Jeffrey Baker, *John Keats and Symbolism* (Sussex: Harvester Press Ltd., 1986), pp. 159-160.

Imprison her soft hand, and let her rave,  
And feed deep, deep upon her peerless eyes. (II, 15-20)

“아침 장미”, 썰물 때 해변에 생긴 “모래 물결 무지개”, “주렁주렁 달린 둥근 작약”, “노여움에 찬 여인”은 모두 화사하고 풍만하여 미가 극도에 달해 있지만 결국 장미는 시들고 파도가 만들어 낸 무지개나 연인의 분노 역시 덧없고 일시적이어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키츠는 강렬하지만 순간적일 수밖에 없는 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물에서 진정한 슬픔을 실컷 맛보라고 한다. 또한 애인이 화가 나서 펄펄 뿔 때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손을 꼭 잡아주고 그녀의 눈동자를 깊이 쳐다보라고 한다. 키츠가 진정한 슬픔을 실컷 맛보라고 한 것이나 애인의 아름다운 눈을 깊이 쳐다보라고 한 것은 매우 감각적인 남녀의 사랑의 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다.

“미”는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어서 곧 추한 모습을 띄게 될 것이고, “기쁨” 또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기쁨이 떠나면 곧 슬픔이 오게 마련이다.

그녀(우울)는 미와 함께 산다 -- 사라져야 할 미와 함께;  
그리고 기쁨과 함께, 작별을 고하느라  
항상 손을 입에 대고 있는; 고통스러운 쾌락 가까이에,  
별이 꿀을 빠는 동안 독으로 변해버리는:

She dwells with Beauty - Beauty that must die;  
And Joy, whose Hand is ever at his lips  
Bidding adieu; and aching Pleasure nigh,  
Turning to poison while the bee-mouth sips: (III, 21-24)

마음에 저리도록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쾌락”도 너무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키츠에게 “미, 기쁨, 쾌락” 등은 모두가 일시적이고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예지의 눈으로 바라본 시인의 눈에는 쾌락 이면에 숨겨진 고통까지도 보이는 것이다.

상황은 끊임없이 모여 터지는 구름과도 같다. - 우리가 웃고 있는 동안에 어

면 곤경의 씨가 사건들의 넓은 경작지 안으로 들어오고 - 우리가 웃고 있는 동안에 그것은 싹을 내고 자라서 우리가 따내야 하는 독 과일을 갑자기 맺는다. 36)

키츠는 진정한 슬픔을 느끼려면 역설적으로 “미, 기쁨, 쾌락” 등을 실컷 맛보라고 하는데, 뮤어(Kenneth Muir)는 “아름다움도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며, 인생도 영원하지 못하기에 더욱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sup>37)</sup>고 말한다. 나이트(G. Wilson Knight)는 키츠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강렬한 관능성(a strenuous voluptuousness)”<sup>38)</sup>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꿀을 빠는 벌의 입은 남근을 상징하고 벌이 입으로 꿀을 빨고 있는 모습은 남녀의 감각적인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벌이 빨고 있는 꿀이 즉시 독으로 변한다는 것은 인간이 강렬한 감각적인 사랑의 쾌락과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에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키츠는 관능적인 사랑이 암시된 표현을 통해 기쁨과 고통 그리고 미와 슬픔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독특하게 제시했다

쾌락이나 기쁨이 고통이나 슬픔과 서로 밀접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키츠는 매우 감각적인 사랑의 장면이 암시되어 있는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렇다, 환희의 신전 바로 그 안에  
베일을 쓴 우울이 그녀의 신성한 제단을 가지고 있다,  
비록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지만, 오직 활기찬 혀로 기쁨의 포도를  
그의 예민한 혀에다 대고 터뜨릴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영혼은 그녀가 가진 강한 슬픔을 맛볼 것이고,  
그녀의 침울한 트로피들 사이에 걸려 있게 될 것이다.

Ay, in the very temple of Delight  
Veil'd Melancholy has her sovran shrine,  
Though seen of none save him whose strenuous tongue

36) Rollins, p. 79.

37) Kenneth Muir, *The Meaning of the Odes in John Keats: A Reassessment* (Liverpool: Liverpool UP, 1969), p. 73.

38) G. Wilson Knight, *The Starlit Dome: Studies in the Poetry of Vision* (London: Oxford UP, 1941), p. 297.

Can burst Joy's grape against his palate fine;  
His soul shall taste the sadness of her might,  
And be among her cloudy trophies hung. (III, 25-30)

우울은 베일을 쓰고 환희의 신전 바로 그 안에 신성한 제단을 가지고 있다. 정열적으로 환희가 들어 있는 포도를 터뜨려 순간적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울을 보지 못한다. 우울의 여신을 찾아 나선 영웅은 여신의 힘에 완전히 압도된 채 승리자인 여신 앞에 걸려있는 무감각한 트로피가 되고 만다. 힘을 다해 포도를 터뜨리지만, 활기찬 혀가 맛보는 것은 우울의 슬픈 힘이다. 포도를 터뜨리는 순간 만끽하게 되는 강렬함에 의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없는 무감각한 존재가 된다. 이것은 실제의 고통과 파괴를 수반하고 또한 강화된 의식, 명료한 고뇌, 순간적인 감각적 강렬함에 의한 쾌락과 고통을 모두 수반하고 있는, 실제의 죽음, 불가피한 운명인 것이다.<sup>39)</sup>

환희의 신전 속에서도 슬픔이 존재한다는 역설과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는 미도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매우 비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키츠는 이러한 역설적인 말을 통해 비록 슬픔이 이 세상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커다란 위안을 주는 미에 대한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진리를 전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를 더욱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조적으로 슬픔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그 슬픔은 미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타당할 것이다. 키츠가 '영혼 형성의 계곡'에 대해 쓴 편지에서 고통이 영혼의 발전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 말을 적용시켜 볼 때, 「우울에 부치는 노래」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는 자신의 문제들이 그의 삶 속에 우울을 가져다준다 해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키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9) Dickstein, p. 230.

## IV. 영원불멸의 미

### 1.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 (“Ode to a Nightingale”)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는 키츠가 그의 친구 브라운과 함께 햄스테드(Hampstead)의 Wentworth Place에 살고 있을 때인 1819년 5월 어느 날 집 근처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나이팅게일의 새소리를 들으며 두 세 시간씩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쓴 시다. 브라운의 회고는 키츠와 나이팅게일의 만남이 이 시를 쓰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819년 봄, 나이팅게일은 내 집 근처에 둥지를 만들었다. 키츠는 그 새의 노래를 듣고 아주 오랫동안 평온한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식사 식탁에서 자양나무 아래 잔디에 의자를 옮겨놓고 두 세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가 손에 종이 한 뭉치를 들고서, 그것을 슬며시 책 뒤에 밀어 넣는 것을 보았다. 확인해보니, 이 네, 다섯 장의 종이 뭉치에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에 대한 그의 시적 감정이 담겨져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 40)

나이팅게일은 여러 시인들이 시의 소재로 다루었지만 키츠의 시에는 창조력, 상상력, 예술 등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키츠의 상상 세계로의 비상과 그것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키츠는 ‘받아들이는 힘’의 구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키츠가 나이팅게일과의 합일을 이루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상상 세계로 비약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인은 고통과 시련의 현실에 대해 보다 진진된 자세를 가지게 된다.

1연에서 화자는 나이팅게일의 황홀한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자신도 상상의 세계로 도피를 꿈꾸기 시작한다.

내 가슴이 아프고, 나쁜 마비상태가 내 의식을 괴롭히누나.

40) Credic Watts, *A Preface to Keat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5), p. 127.

마치 독초를 마신 것처럼,  
혹은 조금 전에 마비시키는 아편제를 찌꺼기까지 마시고,  
레테의 강 쪽으로 가라앉는 듯이:

My heart aches, and a drowsy numbness pains  
My sense, as though of hemlock I had drunk,  
Or emptied some dull opiate to the drains  
One minute past, and Lethe-wards had sunk: ( I , 1-4)

키츠는 나이팅게일의 감미로운 노래 소리를 듣고 마치 독초나 아편제를 마셨을 때와 같은 “나른한 마비상태”로 괴롭다고 한다.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은 나이팅게일의 행복한 운명을 시기해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현실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암시한다. 뒤이어 정열이 충만한 환희의 계절 여름에 나무숲과 끝없는 그늘 사이를 옮겨 다니며 고운 소리로 목청껏 감미로운 선율을 노래하고 있는 나이팅게일의 이런 행복에 화자 또한 행복감을 느껴 정신이 마비될 정도라면서 새의 노래를 통해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는 시인 자신도 이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키츠는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상상 세계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오, 포도주 한 모금 마셔봤으면!(O, for a draught of vintage!)”이라 하면서 꽃의 여신 플로라, 시골의 초원과 춤, 프랑스 남동부 옛 음유시인들의 본거지 프로방스의 노래와 햇빛 그늘린 환락의 맛이 나는 포도주 한 모금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내 그 술을 마시고, 이 세상을 눈에 띄지 않게 떠나  
그대와 함께 아득한 숲 속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That I might drink, and leave the world unseen,  
And with thee fade away into the forest dim: ( II , 19-20)

그가 처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나이팅게일의 행복에 도달하려는 화자의 갈망이나 열망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 주는 진통제 구실을 하는 포도주의 힘을 빌려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통한 행복과의 교감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려는 키츠의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곧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고통스런 현실의 삶과 이상과의 괴리가 있음을 의미하며, 상상이나 환상으로 뛰어넘지도, 단순히 술로 현실 세계에 내재된 고통이나 시련에 대한 의식을 지워버릴 수도 없다.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화자는 나이팅게일의 행복한 운명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나이팅게일과 동일시하려 한다. 이것은 키츠가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을 정신적으로 치유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술이 가지는 마취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마약의 힘을 빌려 망각의 상태에 빠져 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더욱 첨예하게 인식시켜 줄 뿐이고, 결국 키츠는 술의 힘으로도 나이팅게일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담한 현실을 더욱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다.

키츠가 술을 마시고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도피하고자 했던 갈망이나 열망은 그가 벗어나려고 했던 현실 세계를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화자는 그가 멀리 사라져서, 와해되어 현실의 육체를 잃어버리고, 나이팅게일이 잎사귀 사이에서 노래하면서도 결코 몰랐었을 현실의 고통을 완전히 잊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현실의 고통들을 열거해 놓는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서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중풍환자가 몇 가닥 남지 않은, 서글픈, 마지막 백발을 흔들고,  
젊은이도 창백해져서, 유령처럼 마르고, 죽어 가는 그런 곳;  
이곳에서는 생각하는 것이란 오로지 비애로 가득 차고  
흐릿한 눈길의 절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곳;  
이곳에서는 내일이면 미인도 그 빛나는 눈을 유지할 수 없고,  
새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두 눈을 그리워 할 수 없는 그런 곳.

Here, where men sit and hear each other groan;  
Where palsy shakes a few, sad, last gray hairs,  
Where youth grows pale, and spectre-thin, and dies;  
Where but to think is to be full of sorrow  
And leaden-eyed despairs;  
Where Beauty cannot keep her lustrous eyes,

Or new Love pine at them beyond to-morrow. (III, 24-30)

위에 묘사된 현실 세계는 키츠가 1819년 송시를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이 되는 것으로 1818년 5월 3일 친구이자 시인인 레이놀즈(John Hamilton Reynolds)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은 불행, 비통함, 질병, 그리고 억압으로 가득 찬 곳이다. (the world is full of misery and heartbreak, pain, sickness, and oppression.)”<sup>41)</sup>라고 설명한 것보다 더 구체화된 표현이다. 우리 인간이 사는 현실 생활은 고난 속에서 서로 신음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 현실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의식 속에는 희망은 없고 절망뿐이라는 의미이다. 막내 동생 탐이 폐결핵으로 죽은 것처럼 젊음이 아무리 좋지만 병에 걸리면 어쩔 도리 없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연인 패니 브라운과의 사랑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일순간에 끝나고 말 수도 있는 미가 소멸되는 곳 역시 현실 세계인 것이다.

술의 힘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세계는 결국은 상상력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술의 힘을 빌린 망각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그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다.

가거라! 가거라! 나는 그대에게 날아가겠다.  
박카스와 그의 표범들의 수레를 타고 그대에게 가지는 않겠다,  
시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타고 그대에게 날아가겠다.  
비록 무딘 머리가 괴롭히고 지체시키기는 하지만:  
벌써 그대와 함께 있다!

Away! away! for I will fly to thee,  
Not charioted by Bacchus and his pards,  
But on the viewless wings of Poesy,  
Though the dull brain perplexes and retards:  
Already with thee! (IV, 31-35)

앞서 “포도주”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가려 한 것을 그만두겠다는 의지

---

41) Rollins, p. 281.

로 표범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술의 신 박카스의 힘이 아니라 상상력이 고갈되어 무딘 머리로 다소 힘들게라도 화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 즉 시적 상상력인 ‘받아들이는 힘’을 발휘하여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존재하는 상상 세계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벌써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시적 상상을 통해 마침내 환상의 세계에 들어갔음을 보여 준다.

키츠는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고 있는 상상 세계를 마치 달의 여왕이 주위의 시종인 별의 요정들에게 둘러 싸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 놓음으로써 별이 가득한 하늘을 묘사한다. 또한 하늘로부터 산들바람을 타고 질푸른 어스름과 구불구불이끼 낀 길을 통해서 날려 온 아주 어렴풋한 빛을 제외하고는 빛이 없다고 상세히 묘사하는 이 부분에서 깜깜한 밤중에 환상의 숲 가운데 어렴풋한 빛이 있는 그런 곳이 그려진다.

나는 볼 수 없다. 무슨 꽃이 내 발길에 있는지,  
나뭇가지에 어떤 부드러운 향기가 매달려 있는지도,  
하지만 향기로운 어둠 속에서 갖가지 향기를 짐작해 보누나.

I cannot see what flowers are at my feet,  
Nor what soft incense hangs upon the boughs,  
But, in embalmed darkness, guess each sweet (V, 41-43)

키츠는 상상 속에서 자연물의 향취에 흠뻑 취해 감각적인 황홀경에 빠진다. 이곳은 비록 하늘에서 달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지만 녹음이 너무나 무성해서 달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서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이다. 어떤 꽃이 피어서 향기를 뿌리는지 볼 수 없지만, 향기 가득한 어둠 속에서 5월에 피고 자라는 풀과 잡목 숲과 야생 과일나무에서 풍기는 향기를 상상해 본다. 오로지 상상력에 의존하여 향기를 맡아본다면 그가 상상하는 대상의 모습은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상상력의 힘에 대한 생생한 긍정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보이지 않는 시의 힘으로 상상 세계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곳은 시인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단순히 짐작만 해

불 뿐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듣는다. 그리고, 여러 번  
나는 평안을 주는 죽음과 반쯤 사랑에 빠져,  
많은 명상의 시구로 그의 부드러운 이름을 부른다.  
내 고요한 숨결을 공중으로 앗아가 달라고;  
이제 어느 때보다 죽는 것이 풍요로워 보인다,  
고통 없이 한밤중에 사라지는 것이,  
그대가 이리도 황홀하게  
그대 영혼을 밖으로 토해 내고 있는 동안에!

Darking I listen; and, for many a time  
I have been half in love with easeful Death,  
Call'd him soft names in many a mused rhyme,  
To take into the air my quiet breath;  
Now more than ever seems it rich to die,  
To cease upon the midnight with no pain,  
While thou art pouring forth thy soul abroad  
In such an ecstasy! (VI, 51-58)

키츠는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상상 속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원불멸의 미를 포착하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 그와 노래 소리와 의 일체감으로 황홀경에 도달하고, 그 황홀경 속에서 그 절정인 죽음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 이것은 시인이 여름 저녁 날벌레들이 웅웅거리는 소리와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마치 진혼곡 같이 여기며 죽음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순간 그가 진정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잊어버리고 상상 세계에서 얻어진 기쁨과 행복을 영속적으로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키츠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으며 생과 사를 초월한 황홀경에 빠져있는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에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한계를 넘으려는 그의 욕망은 보편적으로 삶과 죽음 간의 간격에서 죽음을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죽음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상상 세계에서 체득된 기쁨이나 행복의 관념이나 심상을 영구히 간직하려는 갈망이나 열망이 낳은 죽음이다.

키츠는 나이팅게일과 가장 동화가 잘 된 황홀의 순간에 다시는 고통과 시련이 존재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황홀의 순간에 영원토록 머무르기 위해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어둠 속에서 영혼을 쏟아 목청껏 노래하는 불멸의 상징으로 객관화된 나이팅게일과의 기쁨과 행복의 일체감을 통해 평안을 주는 ‘죽음’을 갈구하게 된다. 베이커는 이러한 상태를 “극도로 행복한 순간(a moment of supreme happiness)”<sup>42)</sup>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은 그 현실 세계에 대한 상상 세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베이트는 이 시에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요소는 결국 시간문제에서 기인하며, 가변의 현실을 느끼는 시인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sup>43)</sup>고 한다.

죽음에 이르는 길을 행복으로 여겼던 키츠의 그러한 행복은 한낱 ‘바람’일 뿐, 성취되지는 않는다. 지금 그에게 현실의 시간은 고통과 시련을 연속시키고, 과거와 미래는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인 것으로만 파악될 뿐이다. 죽음에 비유될 수 있는 이 절정의 강렬함 속에서 키츠는 신비스럽게 객관화의 상징인 나이팅게일의 세계를 꿰뚫어 읽어낸다. 그는 그가 불멸의 세계라는 상징적 의미로 올려놓았던 새와 자신의 존재양식의 차이를 감지하게 된 것이다. 불멸의 세계에 사는 나이팅게일은 순환적인 자연에 속해 있으므로 존재의 영원한 지속이 보장되며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새를 자신의 ‘받아들이는 힘’의 인식과정을 거친 최후의 일체감으로 인간과 무관한 존재인 기쁨이나 행복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대는 계속 노래하리라, 그리고 나는 귀가 있어도 헛되리라.  
그대의 장엄한 진혼곡에 맞추어 나는 한 줌 흙이 되리라.

Still wouldst thou sing, and I have ears in vain?

42) Baker, p. 148.

43) Bate, *John Keats*, p. 503.

To they high requiem become a sod. (VI, 59-60)

그러나, 위의 두 행에서 보듯이 이제 시인은 고통 없는 죽음도 결국 “한 줌 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한 줌 흙”이 되고 마는 인간의 죽음과 나이팅게일의 영원 불멸성을 대조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시인은 나이팅게일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나가는 이 밤에 내가 듣는 그 음성은 먼 옛날  
황제와 촌부에게도 들렸으리라:  
고향이 그리워, 이국의 옥수수 밭에서  
눈물 흘리고 갔던 루스의 슬픈 가슴으로  
파고들었던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같은 것이리;  
외롭고 쓸쓸한 요정의 나라에서,  
위험한 바다의 물거품을 향해 열려 있는,  
신비의 마법의 창문을 자주 매혹시킨 그 노래와 같은 것이리라;

The voice I hear this passing night was heard  
In ancient days by emperor and clown:  
Perhaps the self-same song that found a path  
Through the sad heart of Ruth, when, sick for home,  
She stood in tears amid the alien corn;  
The same that oft-times hath  
Charm'd magic casements, opening on the foam  
Of perilous seas, in faery lands forlorn. (VII, 63-70)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먼 고대 시대부터 자신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현실 세계의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한다. 키츠는 자신을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상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었던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고대의 황제나 촌부 뿐만 아니라 루스에게도 위안과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노래라고 한다. 게다가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쓸쓸한 요정의 나라”에서도 위안과 기쁨의 소리로 들렸다고 한다. “쓸쓸한”

이라는 말을 통해 그가 상상의 세계에서 점차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사라지자 키츠는 완전히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이 시가 처음 시작될 때의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그것은 환상이었던가, 아니면 눈 뜨고 꾸는 꿈이던가?  
그 음악은 사라졌네: 나는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Was it a vision, or a waking dream?  
Fled is that music: -- Do I wake or sleep? (VIII, 79-80)

키츠가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두 번이나 되풀이한 이 대답 없는 질문은 키츠의 육신은 잠이 들고, 영혼이 잠깐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전에 존재하던 육신의 슬픔과 불행은 ‘받아들이는 힘’에 의해 나이팅게일의 세계를 거치면서 단순히 증발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 시의 주제는 “상상의 세계는 현실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세계는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sup>44)</sup>는 역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웨서만 역시 “힘들이 시 내부에서 격렬히 다투고 있으나, 해결은커녕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sup>45)</sup>라고 평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키츠에게는 갈등과 고뇌의 현실세계와 기쁨과 행복의 상상세계 사이에서의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음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나타난 셈이다.

현실 세계의 고통을 벗어나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통해 상상의 세계 속으로 몰입되면 모든 것을 잊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키츠에게 상상의 세계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이 쓸쓸함과 고독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상상 세계로의 도피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전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러나 곧 현실 세계로 돌아와 인간이 당면해야 할 문제들인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 죽음, 삶, 사랑의 아픔, 병, 늙어감 등을 인내하고 극복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행복과 위안을 얻기 위해 모색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44) Cleanth Brooks,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ew York: Oxford UP, 1966), p. 31.

45) Wasserman, p. 178.

도 중요한 사실은 키츠가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통해 미의 불멸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트릴링(Lionel Trilling)은 키츠가 “먼 옛날에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기쁨과 위안을 얻었던 사람들을 등장시켜 나이팅게일의 영원성과 현실 세계의 무상함을 효과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다”<sup>46)</sup>고 말한다.

## 2. 「희랍항아리에 부치는 노래」 (“Ode on a Grecian Urn”)

키츠는 어려서부터 신화에 대한 여러 책을 탐독했으며, 희랍 예술 특히 조각과 그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하여 자주 대영 박물관에 가서 그 곳에 있는 희랍시대의 아름다운 항아리나 벽화 등을 감상하며 몇 시간씩이나 명상에 잠겼다고 한다. 「희랍항아리에 부치는 노래」의 대상이 된 그리스 항아리에 대해 비평가들은 키츠가 특정한 하나의 항아리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아 온 아름다운 항아리들을 감상하며 이 시의 모델이 될 만한 소재를 모아 만들어 낸 종합된 상상력의 소산일 것이라고 한다. 키츠는 그리스 항아리 위에 새겨진 영원불멸한 미의 세계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현실 세계의 문제들로부터 오는 고통을 극복하고 위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키츠가 그리스 항아리들을 보고 상상력으로 만든 항아리의 모습은 피리 부는 젊은이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과 신비의 사체가 포함된 제사 행렬을 담은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항아리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과는 다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상 세계의 숭고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항아리를 보고 느끼는 황홀경에 진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대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정적의 신부여,  
그대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여,  
우리들의 시가보다 더 아름답게 꽃 같은 이야기를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숲의 역사가여 :

---

46) Lionel Trilling, *The Experience of Literature: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7), p. 85.

Thou still unravishe'd bride of quietness,  
Thou foster-child of silence and slow time,  
Sylvan historian, who canst thus express  
A flowery tale more sweetly than our rhyme. ( I, 1-4)

키츠는 감정이입을 통해 향아리의 본질을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정적의 신부”, “양자”, “숲의 역사가”라고 부르며 향아리의 표면에 새겨진 장면의 묘사로 전개된다. 키츠는 자신이 갈망해 왔던 삶과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고통 사이의 갈등을 잊기 위해 그리스 향아리를 통한 감정이입을 시도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시련을 거치면서도 변치 않고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해 온 향아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향아리의 역사를 찾고 있다. 향아리는 아직 신흠 초야를 맞이하지 않은 순결을 지키고 있는 신부이며, 오랜 세월과 함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묵묵히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아름다운 숲의 노래를 들려주는 “숲의 역사가”이다.

역사가란 숲 속의 시골 생활이나 숲 속에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인가? 혹은, 역사가는 숲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인가? 짐작컨대, 향아리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숲 속의 정령일 것이다. 사실 후자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sup>47)</sup>

브룩스(Cleanth Brooks)의 말대로 그가 숲 속의 사람이든 역사가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으로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 시에서 키츠는 그리스 향아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예술 작품이 지닌 미의 영원성과 현실 세계의 미의 무상함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의식하고 이 세상은 소란스럽고 계속 변화하지만 향아리 위해 새겨진 세계는 시끄러운 소리와 변화를 초월한 영원불변의 세계임을 강조한다.

들리는 선율은 감미롭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선율은

47) Brooks, “Keats's Sylvan Historian History without Footnotes,”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p. 153.

더 감미롭다; 그러니, 너희들 부드러운 피리들이여, 계속 불어라;  
육신의 귀에다가 아니라, 보다 고귀한  
영혼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불어라:

Heard melodies are sweet, but those unheard  
Are sweeter; therefore, ye soft pipes, play on;  
Not to the sensual ear, but, more endear'd  
Pipe to the spirit ditties of no tone: (II, 11-14)

키츠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에 가까운 상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가 있어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 듣는 사람의 귀에 울리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만다.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리스 향아리의 표면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부르는 피리의 노래는 실제로 들리는 노래보다 상상의 껍전에서는 더 감미롭게 들리며 시인의 상상 속에서 영원히 들을 수 있는 불멸의 노래가 된다. 그러나, 이 소리는 저음의 부드러운 속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가변의 세계 속에서 실제 음악은 소리와 함께 사라지지만 향아리에서 들리는 피리의 감미로운 소리는 항상 들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소리라는 것이다.

키츠는 향아리의 영원한 미와 대조적으로 현실 세계의 미가 무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키츠는 자신의 시가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소리보다 영원히 존속하여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키츠는 자신의 짧은 생애에 대한 예감과 고통을 이기려는 정신적 특징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나무 아래 있는 아름다운 젊은이여, 그대는 그대의 노래를 그칠 수 없고,  
그 나무들 또한 잎사귀를 떨어뜨릴 수 없으리;  
대담한 연인이여,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어도  
그대는 결코, 결코 입 맞추지 못하리 --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그대 행복을 얻지 못한다 해도, 그녀는 결코 늙지 않으리,  
그대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그녀는 영원히 아름다우리!

Fair youth, beneath the trees, thou canst not leave

Thy song, nor ever can those trees be bare;  
 Bold lover, never, never canst thou kiss,  
 Though winning near the goal -- yet, do not grieve;  
 She cannot fade, though thou hast not thy bliss,  
 For ever wilt thou love, and she be fair! (II, 15-20)

키츠는 향아리 위에 묘사된 연인은 언제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영원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 대상으로 향아리를 묘사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미모의 여인일지라도, 또한 그러한 여인과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여인이 나이 들어 미가 퇴색되고 죽어 버리면 그것으로 아름다움은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랑도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에게 슬픔만을 줄 뿐이다. 이와 같이 키츠는 예술 세계와 현실 세계를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향아리 위에 그려진 여인의 미를 통하여 그리스 향아리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향아리에 담긴 영원불멸의 미를 추구하고 있다.

키츠는 향아리에 그려진 나무와 피리 연주자는 영원히 푸름과 새로움을 유지할 것이고, 또한 연인들의 젊음과 미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강렬한 사랑 표현도 역사 속에서 시간의 변화로부터 벗어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 행복하고 행복한 나뭇가지들이여! 잎사귀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봄과 결코 작별을 고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영원히 피리로 부는,  
 지칠 줄 모르는, 행복한 연주자여;  
 보다 행복한 사랑이여! 보다 행복하고, 행복한 사랑이여!  
 영원히 따스하고, 여전히 즐길 수 있고,  
 영원히 가슴 두근거리고, 영원히 젊은;  
 모든 숨 쉬는 인간의 열정을 훨씬 초월하여,  
 격심한 슬픔으로 가득 차고 진저리나는 가슴,  
 불타는 이마, 말라붙는 혀를 남기는.

Ah, happy, happy boughs! that cannot shed  
 Your leaves, nor ever bid the spring adieu;

And, happy melodist, unwearied,  
 For ever piping songs for ever new;  
 More happy love! more happy, happy love!  
 For ever warm and still to be enjoy'd,  
 For ever panting, and for ever young;  
 All breathing human passion far above,  
 That leaves a heart high-sorrowful and cloy'd,  
 A burning forehead, and a parching tongue. (III, 21-30)

이 연에서 키츠는 그리스 향아리에 그려진 행복하고 행복한 나뭇가지, 행복한 연주자, 행복한 연인을 보면서 자연, 예술, 사랑의 단계로 그리스 향아리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감을 표현한다. 키츠는 상상력을 통해 자신과 향아리를 동일시함으로써 미가 소멸되지 않으며, 즐거움이 고통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을 주는 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키츠가 그리스 향아리 위에 새겨진 그림에서 영원불변한 정열과 미를 포착하여 위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생각할 때 그 행복감이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마지막 세 개의 행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키츠는 이상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면서도, 그 행복이 인간의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즉, 시인은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고정되고 냉랭한 영원의 세계에 사는 연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리 없는 슬픔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제 시인은 서서히 영원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발길을 돌린다.

이 작은 마을의 거리는 영원히  
 침묵하리; 한적한 마을을 말해줄  
 어떤 사람도 돌아오지 않으리.

And, little town, thy streets for evermore  
 Will silent be and not a soul to tell  
 Why thou art desolate, can e'er return (IV, 38-40)

작은 마을은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에서 시인이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느낀 쓸쓸한 분위기와 비슷한 것으로 상상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향아리에 새겨진 세계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자신이 몰입해 왔던 향아리의 영원세계에서 차가운 현실 세계로 돌아온 키츠에게 향아리는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말없는 형상, 즉 그리스의 한 예술품인 쓸쓸한 모습의 형상으로 보이게 된다.

오 아테네의 형상이여! 아름다운 자태여! 대리석 남자와  
여자들의 모습이 그 전면에 새겨진,  
숲의 나뭇가지들과 짓밟힌 잡초가 새겨진.  
그대, 말없는 형태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영원이 그리하듯이 : 차가운 목가여!

O Attic shape! fair attitude! with brede  
Of marble men and maidens overwrought,  
With forest branches and the trodden weed;  
Thou silent form, dost tease us out of thought  
As doth eternity: Cold Pastoral! (V, 41-45)

“차가운 목가여!”라는 표현은 이 시의 모든 역설적 표현의 핵심과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 향아리는 차가운 목가이지만 인간에게 친구로 남는다. 설사 대조적으로 묘사되었다 할지라도 그 둘을 조화하려는 것이 시인의 의도인 것이다. 여기에 묘사된 목가는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다.

키츠는 영원히 늙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언제나 위안이 되어 주고 영원불변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 향아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친구로서 존재할 것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세대가 소멸할 때,  
우리의 비애와는 다른 비애 속에서,  
그대는 인간의 친구로 남아, 그에게 말하리라,

When old age shall this generation waste,

Thou shalt remain, in midst of other woe  
Than ours, a friend to man, to whom thou say'st (V, 46-48)

그리스 향아리를 단순히 외형 상 뿐만 아니라 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역사 속의 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지니고 있는 진정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향아리는 인간이 느끼는 비애와 다른 역사의 비애 속에서 친구로 남아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둬다며 겪고 느끼고 바라본 사실을 전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키츠는 향아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영원히 전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미는 진리이며, 진리는 미” -- 이것은  
너희들이 지상에서 알아야 할, 알 필요가 있는 전부라고.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that is all  
Ye know on earth, and all ye need to know. (V, 49-50)

이 두 행은 많은 비평가들에게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크게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로서 하트만(Geoffrey Hartman)은 “시인의 사색은 순환적이다.”라고 하면서, “미는 진리, 진리는 미”라는 표현은 그리스 향아리처럼 스스로 순회하는 교차법적인 문구이다. 진리로 향한 궁극적인 회전이나 결정적인 진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sup>48)</sup>고 평한다. 이 말은 이 두 행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에 가깝다. 이에 반해 브룩스는 “이 두 행이 극적인 문맥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말이다”<sup>49)</sup>라고 논평했다. 근래 비평가들은 브룩스의 견해에 긍정하면서, 이 두 행이 「희랍 향아리에 부치는 노래」의 전체적인 요약이며 매우 적절한 결론이 된다고 말한다. 키츠의 상상력에 의해 포착된 향아리에 새겨진 미의 모습은 그리스 시대에 보여준 것처럼 변함없이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은 항상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숲의 역사가가 전해 주고 있는 이야기는 참된

48) Geoffrey Hartman, *The Fate of Reading*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5), p. 144.

49) Brooks, "Keat's Sylvan Historian History without Footnotes,"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p. 165.

것이며 언제나 진리인 것이다. 진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간을 초월해서 후세에 계속하여 미를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향아리의 미는 진리이며, 키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키츠 역시 이야기 한 것처럼, 진리란 상상력의 힘으로 아름다움이라 감지한 것이다. 여기서 진리는 자아를 반영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힘’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정수를 통찰할 수 있어야 얻어지는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키츠는 자신의 미에 대한 애정과 포착된 미를 진리가 되도록 하는 힘을 자신의 상상력에서 찾은 것이다. 키츠는 상상력이야말로 미와 진리를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이 상상력은 인간의 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각이며 경험인 것이다.

현실 세계의 변화하고 지속되지 않는 미에서 무상함을 느낀 키츠는 영원불변의 그리스 향아리로부터 상상력에 의해 묘사된 미를 포착하고 진리를 발견한다. 이를 통해서 키츠는 순간적인 삶과 소멸해 버리고 말 현실 세계의 미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삶의 위안을 얻었으며, 또한 유한성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미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리로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키츠는 끊임없이 상상력을 통해 인간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고 있는 영원불멸의 미를 모든 사물 속에서 포착하려고 노력한다.

### 3. 「가을에게」 (“To Autumn”)

「가을에게」에서 키츠는 자연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삶의 영속성을 깨닫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생명력에 바탕을 두고 우주적 리듬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터득한다. 블룸이 “「가을에게」는 키츠의 모든 송시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이며 영어로 된 가장 짧은 시로써 완벽에 가까운 시이다.”<sup>50)</sup>라고 극찬하였고, 벤들러(Helen Vendler)는 「가을에게」는 “말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시(To Autumn said everything there

50) Bloom. *John Keats*, p. 432.

was to say)<sup>51)</sup>라고 찬사를 보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완숙한 시로 평가받는 이 시는 키츠의 송시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실이다. 시인은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시가 가장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특질들을 완벽하게 수용하여 키츠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꾸밈없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1연은 가을이라는 자연현상의 과정, 즉 추수 전의 무르익음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만물이 무르익은 결실 과정을 통해 현실의 풍요로움과 생동감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안개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여,  
 성숙시키는 태양의 절친한 친구여;  
 태양과 함께 은근히 초가집 처마를 휘감은  
 포도 넝쿨에 열매를 달아주고 축복하는 그대;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로 시골집 이끼 낀 나무를 고개 숙이게 하고,  
 온갖 과일을 씨앗까지 익게 하는 구나;  
 조롱박을 부풀게 하고, 달콤한 알갱이로  
 개암열매를 살찌우며; 꿀벌들을 위해  
 늦게 피는 꽃들을 명을지게 하며  
 여름이 그 벌들의 끈적끈적한 벌집들을 넘쳐흐르게 하였기에.  
 꿀벌들이 따스한 날들이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할 때까지,

Season of mists and mellow fruitfulness,  
 Close bosom friend of the maturing sun,  
 Conspiring with him how to load and bless  
 With fruit the vines that round the thatch-eaves run:  
 To bend with apples the mossed cottage-trees,  
 And fill all fruit with ripeness to the core:  
 To swell the gourd, and plump, and the hazel shells  
 With a sweet kernels to set budding more,  
 And still more, later flowers for the bees,  
 Until they think warm days will never cease,  
 For summer has o'er-brimm'd their clammy cells. (I, 1-11)

51) Vendler, p. 13.

“풍성한”, “성숙시키는 태양”, “시골집 나무” 등과 뒤이어 나오는 구절에서의 “늦게 피는 꽃들”, “부풀게 하고”, “살찌우고”, “끈적끈적한 벌집들” 등은 모두가 조화롭고 따뜻한 느낌을 전해 주며, 시각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성숙의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을 묘사한다. 키츠는 가을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 감정적으로 몰입하여 참여하게 된다. 이렇듯 자신이 가을의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또한 이들의 활동 자체를 자신의 활동으로 느끼기 때문에 시간의 결과를 의식하기 못한다. 따라서 성숙해 가는 자연 현상이 여기에서는 시간 순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만약 원래대로라면 아마 처음에 꽃이 피고, 다음에 과일이 익어가며, 마지막으로 넝쿨과 나뭇가지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가을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안개”, “고개 숙이게 하고”, “끝나다” 등과 같은 어휘에서 “완결”에 동반되는 다가올 겨울의 쇠퇴와 죽음의 그림자가 암시되어 있다. 키츠는 이러한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준비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그는 죽음과 재생이라는 일종의 순환하는 바퀴 안에서 미래의 생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순환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을에게」는 “인간의 덧없는 찰나적 속성을 높이 사는 동시에 포기하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것”<sup>52)</sup>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가을은 상상력의 작용으로 가을걷이를 하는 시골 아낙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제시된다. 키츠는 감각에 호소하는 관찰로써 추수 이후 가을의 충만함을 마치 선명한 그림처럼 묘사한다.

그 누가 그대(가을)를 그대의 수확물 속에서 종종 보지 못했던가?  
 때때로 집 밖에서 너를 찾는 사람들은  
 그대가 곡식 창고 바닥에 키질하는 바람에 그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리 나부끼며 근심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나,  
 혹은 반쯤 추수한 이랑에서 그대가 완전히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  
 아편 냄새에 취한 채로, 그대의 낮은 남겨진 이랑과 뒤엉킨 꽃들을 남겨둔 채,  
 때로는 이삭 줍는 사람처럼 그대는

52) Sharp, p. 56.

짐을 인 머리를 가누며 개울을 건너고,  
혹은 사과즙 압착기 곁에서 인내심 있는 표정으로 그대는  
마지막 방울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몇 시간이고 지켜본다.

Who hath not seen thee oft amid thy store?  
Sometimes whoever seeks abroad may find  
Thee sitting careless on a granary floor,  
Thy hair soft-lifted by the winnowing wind;  
Or on a half-reap'd furrow sound asleep,  
Drowsed with the fume of poppies, while thy hook  
Spares the next swath and all its twined flowers:  
And sometimes like a gleaner thou dost keep  
Steady thy laden head across a brook;  
Or by a cyder-press, with patient look,  
Thou watchest the last oozing hours by hours. (II, 12-22)

움직임의 형상으로 가득했던 1연에 이어 2연은 움직임과 정지의 중간 상태이다. 가을의 모습은 데이븐포트(Arnold Davenport)에 의하면, “두 개의 상반된 개념 사이에 있는 경계의 지점으로, 하나의 진행이 완료되고 다음의 진행이 아직 시작되기 전의 하나의 균형된 순간”<sup>53)</sup>이다. 가을은 벌써 “그의 창고 가운데” 있다. 가을은 “키질하는 바람에 그 머리칼을 부드럽게 나부끼는” 사람, 추수 끝난 창고 바닥에 “근심 없이 앉아 있는” 사람, 반쯤 수확한 이랑에서 “완전히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이삭 줍는 사람”으로 의인화된다. 가을은 더 이상 능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의 노력의 향기로운과 부드러움에 취하여 정복되어 있는 여성이다. 이런 이미지는 키츠의 시에서 계절의 끝 무렵의 심리적 성숙과 상상력과 자연의 통합, 그리고 내적 사고와 외면적 실체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가을의 모습은 초월적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완전히 개방되어 우리에게 친숙함을 준다.

그러나, “마지막 줍”의 이미지를 통해 수확의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과 아울러 죽음의 개념이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은 태어나

---

53) Arnold Davenport, "A Note on 'To Autumn'," *John Keats: A Reassessment* (Liverpool: Liverpool UP, 1969), p. 97.

서 성장하여 성숙하면 가을의 추수에 의해 순환을 마무리 짓는다. 가을에서 겨울의 정지 상태로 가는 조용한 움직임과 졸음을 느끼게 된다. 가을은 추수하는 자인 동시에 생명을 보존하는 자이니, 죽음과 삶의 이중적 의미를 모두 포용하는 존재인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시에서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거대한 유기적 움직임의 양상이 드러난다. 가을은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키츠는 인간의 삶이란 죽음 속의 성장과 성장 속의 죽음이 서로 연속되어 있으며 공존한다는 자신의 완숙한 견해를 제시한다. 스페리(Stuart M. Sperry)는 “이 시가 초기의 송시들이 가지지 않은 섬세한 대칭과 균형을 이룬다.”<sup>54)</sup> 고 하면서, 이 시에서 시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에 무언가 새로운 것 그리고 자기 충족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3연에서 생성과 소멸, 성장과 죽음의 대칭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시인은 다시 봄을 생각한다.

봄의 음악은 어디에 있는가? 아, 그것은 어디에?  
 봄의 음악은 생각하지 말라, 그대에게도 그대 노래가 있기에, ---  
 길게 늘어선 구름이 부드럽이 사그라지는 해를 석양으로 꽃피우고,  
 그루터기 들판을 장밋빛으로 채색하는 동안;  
 그 때 강가 갯버들 틈에서 자그마한 하루살이 떼가  
 가벼운 바람이 일다 사그라질 때 높게 오르거나 가라앉으며  
 구슬피 합창을 하며 울어댄다.  
 그리고 다 자란 양떼는 언덕 끝에서 요란히 울고;  
 귀뚜라미가 울어대고, 이제 부드러운 고음으로  
 홍방울새가 채마밭에서 휘파람 불고  
 모여드는 제비들은 하늘에서 지지배배 지저귐다.

Where are the songs of spring? Ay, where are they?  
 Think not of them, thou hast thy music too, ---  
 While barred clouds bloom the soft-dying day,  
 And touch the stubble-plains with rosy hue;  
 Then in wailful choir the small gnats mourn  
 Among the river swallows, borne aloft

54) Sperry, p. 337.

Or sinking as the light wind lives or dies;  
 And full-grown lambs loud bleat from hilly bourn;  
 Hedge-crickets sing; and now with treble soft  
 The red breast whistles from a garden-croft  
 And gathering swallows twitter in the skies. (III, 23-33)

“봄의 음악”은 영원한 순환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죽음 후에 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봄의 음악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가을이 가진 음악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키츠는 역설한다. 키츠가 봄의 노래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서 사라져 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겨울을 내다보는 문턱에서 지나간 봄을 돌이켜 봄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현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를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키츠는 부드럽게 사그라지는 해를 석양으로 꽃피우고, 황량한 그루터기 들판을 장미색으로 채색하여 성장과 소멸을 동시에 나타낸다. 성숙과 소멸의 상반된 요소들을 통합하고 수렴할 정도로 인식과 시야의 범위가 넓어진 시인은 조그만 하루살이들이 구슬프게 함창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다 큰 어린 양들이 언덕 위에서 음매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울새가 높고 부드러운 소리로 채마밭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듣는다. 이처럼 청각적 이미지리를 이용해 시인은 자연 현상 사이에 거리를 갖게 됨으로써 외부 세계의 시간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라져 버리고 있는 계절의 여운에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때 지어 모여 있는 제비들이 가을의 떠남과 끝남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여름의 아름다운 나날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들의 떠남은 또한 이들이 봄에 다시 돌아옴을 예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계절의 순환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삶의 과정도 이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어 죽음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시는 삶을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으로 보고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과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키츠는 현실세계에서 성장과 쇠퇴, 삶과 죽음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원

불멸의 미를 느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키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고통과 기쁨이 내재된 인생의 양면성을 수용하였고 이 시에 나타난 가을의 영상을 비극적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가을이 지닌 대립적인 모습을 통해 인생사의 양면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스틸링거(Jack Stillinger)는 이에 대해 “이 시의 초점과 태도는 화자가 그가 사는 세상과의 화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focus and the attitude show the speaker reconciled to the real world he lives in.)”<sup>55)</sup>라고 지적하였고, 퍼킨즈(David Perkins)는 “죽음이라는 사실조차도 포함한 수용(an acceptance which includes even the fact of death)”<sup>56)</sup>이라고 말한다.

「가을에게」는 ‘받아들이는 힘’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주는 시로서 이상화된 대상과 합일을 이루고자 했던 키츠의 노력은 공감각적 동일화와 자아소멸을 통하여 그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 시에서 키츠는 자신의 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힘, 용기, 희망, 기쁨 등을 주길 바라면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이는 나이팅게일과 그리스 향아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영원불멸의 미를 비로소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도 얻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물에서 상상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미가 영원히 존재하여 삶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 주며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키츠는 이제 자신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가을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영원불멸의 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55) Jack Stillinger,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John Keats's Od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8), p. 337.

56) David Perkins, *The Quest for Permanence: The Symbolism of Wordsworth, Shelly and Keat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59), p. 294.

## V. 결론

키츠의 전 생애와 작품을 추진시킨 유일한 원동력은 미의 추구였다고 볼 수 있다. 키츠는 상상력을 의미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념인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현실의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본질을 투시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파악한 시인으로서,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원리이자 진리라고 생각하였다. 키츠가 쓴 5편의 송시는 키츠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시 세계에 조화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 들여져 그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인생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미의 양상을 ‘감각적 미’와 ‘영원불멸의 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키츠의 상상력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서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외부를 향해 열린 마음 즉 ‘받아들이는 힘’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 키츠는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물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사물이란 창조적 과정의 마지막 산물이며 상상력과 현실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다. 자신의 미에 대한 애정과 포착된 미를 진리가 되도록 하는 힘을 자신의 상상력에서 찾은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상상력이 미로서 포착한 진리는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 키츠가 그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현실세계의 고통 또한 우리 인간의 영혼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동생 탐의 죽음과 재정적 궁핍, 자신의 질병 그리고 연인 패니 브라운을 향한 끊임 없는 사랑의 고뇌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때에 쓰여진 일련의 송시들은 현실세계에서 키츠가 겪는 고통을 수용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유를 알려고 안달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지식에 만족한 채 남아있는 능력, 즉 자아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포용하려는 ‘받아들이는 힘’의 극치를 보인다. 시인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과 삶의

경험들에서 오는 희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쇄시켜 줄 정도로 강력하다. 따라서 시인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포착한 시의 대상들은 지나칠 정도로 섬세하고 그 강렬한 아름다움이 극대화하게 된다.

‘감각적 미’는 키츠가 초기 시에서부터 보였던 자연에 대한 감각적 묘사와 화려한 표현 기교, 남녀 간의 사랑을 암시하는 장면을 통해 오관 전체를 충족시키는 감각적 쾌락을 느끼게 하는 미이다. ‘감각적 미’는 프시케 신화를 소재로 삼아 큐피드와 프시케의 결합 장면을 감각적으로 화려하게 그려낸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와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바탕으로 환희의 신전 속에 도슬픔이 존재한다는 역설과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는 미도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우울에 부치는 노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프시케에게 부치는 노래」에서는 프시케가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감내하여 마침내 행복을 찾고 여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신화를 소재로 큐피드와 프시케의 결합을 통하여 현실 세계의 고통과 고뇌를 극복하고자 한 시인의 노력을 보여 준다. 키츠는 이 시에서 남녀 간의 매우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의 미를 찬미하는 장면을 그린다. 또한 올림포스 신전의 최후의 신인 프시케의 고통과 변민을 충분히 인식하는 태도로 시인 스스로가 프시케의 변민에서 오는 고통을 대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큐피드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프시케를 찾아 들어가는 장면은 상상력이 열어 놓은 틈으로 감각적인 사랑의 미를 추구하여 삶의 위안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키츠의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울에 부치는 노래」에서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환희는 사라지기 쉽고, 행복 또한 그 정점에 이르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 주며, 고통과 우울과 기쁨과 미는 깊이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은 역설의 산물이기에 미가 진리이고, 진리가 미라면, 즐거움은 슬픔이고 슬픔 또한 즐거움이라는 역설도 가능한 것이다. 아름다움도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며 무상함은 아름다움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즐거움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각함으로써 미는 더 소중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우울은 미, 사라져야 하는 미와 함께 머문다.” 라는 구절은 키츠의 미에 대한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 시에서 나타난 미는 영원한 미가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미이고, 그 미는 우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영원한 미는 현실에서는 아름답지 않고,

현실에서는 변화의 미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는 쾌락만으로 이루어진 미보다는 슬픔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불멸의 미’는 현실에 내재하는 고통과 슬픔까지도 수용하여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미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이상과 현실, 즐거움과 고통, 불멸과 필멸 등의 상반된 개념들을 통합하려는 키츠의 노력을 잘 보여 준다.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 「희랍 항아리에 부치는 노래」 그리고 「가을에게」에서 키츠는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각각 나이팅게일, 희랍 항아리, 가을에 몰입하여 합일됨으로써 영원불멸의 세계를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현실에 가득한 고통의 극복과 긍정적 현실수용을 경험하게 된다.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에서는 현실세계를 벗어나고자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술과 노래, 춤을 통하여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가 존재하는 영원한 상상의 세계를 갈망한다. 하지만 결국 이 상상의 세계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순환과 변화 과정을 거치는 곳임을 깨닫게 된다. 무자비한 현실의 고통과 자아의식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키츠는 현실과 상상 속에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불멸의 상징으로 이끌어낸다. 따라서 진정한 미는 변화와 쇠퇴를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벗이 되고 있음을 역설한다.

「희랍 항아리에 부치는 노래」에서 키츠는 그리스 항아리와 극적이고 상상적인 만남을 통하여 감정이입에 의한 영혼의 감응을 보여 주고 있다. 키츠는 그리스 항아리 위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영원불멸의 미를 포착하고 인간 세계의 문제들로부터 오는 고통을 극복하며 위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 항아리 위에 새겨진 모든 숨결은 인간의 열정을 능가하며, 또한 연인의 사랑과 노래는 비록 현실 세계의 육체적인 쾌감은 맛볼 수 없지만 영원한 젊음, 미, 신선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예술의 불멸성,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조화롭게 대치시켜 불변의 예술 작품이 갖는 미 속에서 영원한 현재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가을에게」에서 시인은 가을의 노래를 통해 계절의 순환적인 변화를 깨닫고, 삶도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의식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우주적 리듬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터득할 정도로 성숙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키츠는 자신을 완전히 가

을과 합일시킴으로써 그가 말한 상상력인 ‘받아들이는 힘’의 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실의 상반적인 요소나 변화와 소멸을 순환적 과정의 일부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현실세계의 고통과 무상함을 고통 없이 받아들이는 지혜를 터득하였고, 유한한 인간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키츠의 시에는 세상의 고통과 갈등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물에서 상상력을 통해 포착한 미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의 시들은 인간의 영원한 친구로 남아 현실의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위안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 Bibliography

### I. Primary References:

- Cook, Elizabeth(ed). *John Keats: The Major Works*. New York: Oxford UP, 2001.
- Rollins, Hyder Edward(ed).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0.

### II. Secondary References:

- Baker, Jaffrey. *John Keats and Symbolism*. Sussex: Harvester Press Ltd., 1986.
- Bate, Walter Jackson. *Coleridge, Keats and the Imagination*. Columbia: Missouri UP, 1990.
- \_\_\_\_\_. *John Keats*. Cambridge and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1978.
-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London: Cornell UP, 1971.
- Brooks, Cleanth.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ew York: Oxford UP, 1966.
- \_\_\_\_\_. "Keat's Sylvan Historian History without Footnotes,"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 D'Avanzo, Mario. *Keats' Metaphors for the Poetic Imagination*. Durham: Duke UP, 1967.
- Davenport Arnold. "A Note on 'To Autumn'," *John Keats: A Reassessment*. Liverpool: Liverpool UP, 1969.
- Dickstein, Morris. *Keats and His Poetry: A Study in Developme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4.
- Ford, N. F. *The Prefigurative Imagination of John Keats: A Study of the Beauty-Truth Ident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Hamden, Conn.: Archon Books, 1966, p. 59.
- Hartman, Geoffrey. *The Fate of Reading*.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5.

- Hirst, Wolf Z. *John Keats: Twayne's English Authors Series*. Boston: G. K. Hall & Co., 1981.
- Hough, Graham. *The Romantic Poets*. London: Grey Arrow Edition, 1958.
- Knight, G. Wilson. *The Starlit Dome: Studies in the Poetry of Vision*. London: Oxford UP, 1941.
- Muir, Kenneth. *The Meaning of the Odes in John Keats: A Reassessment*. Liverpool: Liverpool UP, 1969.
- Murry, John Middleton. *Keats and Shakespeare*. London: Oxford UP, 1925.
- \_\_\_\_\_. *Keats*. London: The Alden Press, 1955.
- Perkins, David. *The Quest for Permanence: The Symbolism of Wordsworth, Shelly and Keat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59.
- Pettet, Ernest C. *On the Poetry of Keats*. Cambridge: Cambridge UP, 1986.
- Sharp, Ronald A. *Keats, Skepticism and the Religion of Beauty*. Athens: The Univ. of Georgia Press, 1979.
- Sperry, Stuart M. *Keats the poet*. Princeton: Princeton UP, 1974.
- Stillinger Jack.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John Keats's Od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8.
- Trilling, Lionel. *The Experience of Literature: A Reader with Commentaries: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7.
- Vendler, Helen. *The Odes of John Keat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1983.
- Waldoff, Leon. *Keats and the Silent work of Imagination*. Urbana, Champaign: Univ. of Illinois Press, 1985.
- Wasserman, Earl R. *The Finer Tone: Keats' Major Poem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 Watts, Cedric. *A Preface to Keat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5.
- Williams, Meg Harris. *Inspiration in Milton and Keats*.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 권영미. 「「희랍항아리에 부치는 노래」에 나타난 미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1.
- \_\_\_\_\_. 「키이츠의 송시에 나타난 미의식」.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6.

- 김미아. 「Keats의 ‘Great Odes’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3.
- 박천숙. 「John Keats의 시에 나타난 미와 진리의 포착 - 그의 “Negative Capability” 이론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영미문학연구회. 『영미문학의 길잡이 1(영국문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 이순영. 「John Keats의 Odes에 나타난 미(美)의 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이정호. 『키츠 시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정주애. 「존 키츠의 송시(Odes)에 나타난 고통의 치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정해성. 『낭만주의 및 빅토리아 조 영시 개관』. 서울: 도서출판 두남, 1998.



<Abstract>

## A Study on the Aspects of Beauty in John Keats's Odes

*Lee, Hyun-eui*

Supervised by Professor Hur, *Yoon-Deok*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oncrete aspects of beauty. To accomplish this,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Negative Capability." Then, the paper will examine "the sensuous beauty" that Keats desires to continually express through imagination in *Ode to Psyche* and *Ode on Melancholy*. Finally, "eternal beauty" will be illustrated in *Ode to a Nightingale*, *Ode on a Grecian Urn*, and *To Autumn*.

John Keats(1795–1821) is a post-romantic poet who tried to find truth and beauty in human life. He, like other contemporary Romantic poets, believed imagination to be the creative power that links the poet's mind and the external world. Keat's usage of creative imagination is referred to as "Negative Capability". According to Keats, "Negative Capability" means that man accepts uncertainties or doubts without discontent, striving for fact or reason. In essence, Keats believed in overcoming pain and adversity in the real world by accepting "truth" as "beauty."

Keats had a series of misfortunes during his short life; for example, poor living, disease, the death of his brother Tom, and the frustration accompanying his love with Fanny Browne. He firmly believed that beauty could give people comfort, passion, and peace in their lives, which were often filled with pain and sorrow. In particular, he thought that beauty made life positive. He was, therefore, willing to accept human suffering as a part of life.

In his odes, written in 1819, "Beauty" appears in various forms and can be classified in at least two ways. "The sensuous beauty," which refers to love between men and women, is represented by the visual, aural, and tactile images of the five sensory organs. The other

category relates to "the eternal beauty," known as eternal truth. This type of beauty includes spreading the wings of a dream in the visionary world through "Imagination."

In conclusion, beauty was quite significant to Keats because it allowed man to accept and overcome the sufferings of human life. He tried to process aspects of human life, particularly challenges, optimistically rather than pessimistically. By overcoming the agonies and troubles of human life, and by sublimating them as objects of beauty, Keats has provided us with consolation and pleasur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8.